**과제문③**

**두 개가 된 금덩이**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란히 하고 사는 형제의 집 앞에는 항상 맑은 물이 솟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목이 마른 형이 우물로 가서 물을 긷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동생은 장가를 간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형은 금덩이를 동생의 처마 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동생이 자고 일어나 보니, 웬 금덩이가 처마 밑에 있었습니다.

‘형님네는 식구도 많아서,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동생은 형님 몰래 금덩이를 도로 형님 집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금덩이를 본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착한 동생이 다시 갖다 놓은 모양이구나.’

형은 동생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덩이는 너가 가지는 게 좋겠어!”

 　“그건 형님이 가지셔야 해요.”

형제는 서로 금덩이를 양보하느라 실랑이를 계속했습니다.

“안 되겠다. 금덩이 하나 때문에 우리 사이에 불화가 생기겠어.”

“그래요, 형님. 금덩이를 다시 우물에 갖다 넣기로 해요.”

형제는 금덩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물 속에는 똑같이 생긴 금덩이가 또 하나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덩이는 우애 깊은 형제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課題文③

**二つになった**

仲がすごく良いことで有名な兄弟がいました。家が同志で暮らす兄弟の家の前にはいつもんだ水がわくがありました。

そんなある日の夜、のどがいた兄が井戸に行って水をんでいたら、ぴかぴかと光る金塊がすくい上がりました。

（弟はをして間もないからお金がたくさん必要だろう。）

兄は金塊を弟の下におきました。

弟がて起きたら、なんと金塊が軒下にありました。

（兄さんのところは家族も多いからお金がたくさん必要だろう。）

弟は兄さんにで金塊をもと通りに兄の家に持っていっておきました。

朝に金塊を見た兄はびっくりしました。

（善良な弟が持ってきて置いたんだな。）

兄は弟に事実のまま話しました。

「この金塊は君が持ったほうがいい! 」

「それは兄さんが持つべきだよ。」

兄弟はおいに金塊をろうといざこざが続きました。

「もう、いいよ。 金塊ひとつのせいで、たちの仲が悪くなりそうだ。」

「そうですね、兄さん。金塊を井戸にしましょう。」

兄弟は金塊を持って井戸に行きました。

ところが、兄弟をかせることがおきました。 井戸の中にはそっくりな金塊がもう一つ入っていたからです。

金塊は仲の良い兄弟に下りた天からのり物だったのです。